

액티브 실버층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건강 쾌적 기능성 소재 의류의 착용 행동

박명자*** · 김정민* · 박재옥*†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연구사업단**

Wearing Behavior of the Active Silver Generation to Functional Textiles Related with Gender and Age

Myung-Ja Park*, Jung-Min Kim* and Jae-Ok Park*†**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Hanyang University*

Hanyang University Institute of Aging Society**

(2009. 12. 28. 접수일 : 2010. 2. 8. 수정완료일 : 2010. 12. 15. 게재확정일)

Abstract

Studying awareness, importance, satisfaction, and wearing behavior of functional textiles for active silver generation related with gender and age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clothing products development to improve and maintain their health and marketing strategy fit for user characteristics. For empirical research, a survey was developed and the aged 50 and above were 332 respondent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silver generation considered all the clothing comfort sensations important when wearing clothes, such as tactile sensation, clothing pressure sensation, thermal/wet sensation, and motion sensation in human physiological aspect. Also, stretchy fabrics were ranked first in awareness, the number of wearing times, and satisfaction of comfort functional fabrics. More than 30% of silver generation have fifteen items out of 36 functional clothes. Second, in analysis of awareness by gender on functional clothing products, women were more aware of health/safety-oriented fabrics than men were. Otherwise, men had more knowledge about the water-related properties of functional fabrics than women have, such as water/moisture absorptive and water-repellent/vapor permeable fabrics. While women have more indoor casual wear, men had more active sportswear. Also, women expressed a strong preference to the stretchy function of fabrics.

Key words: active silver generation(액티브실버층), functional fabrics(기능성 소재), comfort function(건강 쾌적 성능), awareness(인지), wearing behavior(착용).

이 논문은 2008년 HYU연구특성화사업으로 전액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HYU-2008-T).

† 교신저자 E-mail : jaepark@hanyang.ac.kr

I. 서 론

액티브 실버(active silver)라고 불리는 오늘날의 신 노년층은 '뉴 실버'(NS세대), 액티브 시니어세대(active senior), 골드세대(황금세대), S세대, G세대라고도 한다. 특히 1950년대 전후에 태어난 50대 베이비부머(baby boomer)들은 높은 구매력과 새로운 가치관을 지니고 고학력에 따른 높은 문화 수준을 향유하고 있으며, 건강생활이나 외모에도 관심이 많아 스포츠·레저 등을 즐기면서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한다. 이러한 신 노년층이 향후 수년 안에 본격적으로 노년층에 진입하게 됨으로써, 노년층 관련 산업을 주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구매력이 높은 새로운 노년층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는 의생활을 추구하고자 하고, 젊은 층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의복에 관심이 많으며 의복 가치와 요구를 보인다. 그러므로 노년층에게도 다른 연령층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의복이 필요하다. 특히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건강 쾌적 의복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따라서 실버시장에서의 상품 개발에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노년 환자의 건강 문제에 주로 관심을 두었다면, 이제는 건강한 신 노년층에게 제공하는 의류산업이나 레저산업 등에 관심을 집중해야 할 적절한 시기인 것이다.

노년층의 연령 기준은 50대를 장년층 또는 예비 노년층으로 혼용하여 사용하는 등 연구마다 차이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50대 이상인 예비 노년층을 신 노년층이라 하여 노년층의 범주에 넣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향후 근 미래의 노년층 관련 산업을 주도 할 주 소비층은 바로 예비 노년층인 베이비부머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소비자들의 인

식과 행동의 분석은 매우 필요하다^{1,2)}.

본 연구의 대상으로 다룬 건강 쾌적 기능성 의류 소재는 이미 청장년층에게 널리 알려져 시판되고 있고 소재의 효능으로 인하여 기능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노년층 소비자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연구도 미흡한 실정이다^{3,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년층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기능성 소재에 대한 인지도 및 착용 정도와 만족도, 소유도를 파악할 뿐만 아니라 건강 의복 소재의 인체 생리학적 측면에서 본 쾌적 성능의 중요도를 조사하여 노년층에게 쾌적성을 높일 수 있는 기능성 의복 재료를 연구 개발하고, 최적의 기능성 건강 의복을 제작할 수 있도록 의류 생산자에게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문헌 연구

1. 노년층의 인체생리학적 특징

노년층은 생리적으로도 근육 및 각 기관과 피부의 약화 현상이 일어나며, 뇌의 신경전도 속도의 감소로 환경온도에 민감히 대처하지 못하여 체온 조절 반응이 불안정하게 되며, 반응 속도 또한 늦어지기도 하여 체온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기능이 약화되므로 체온 조절 기능이 저하된다. 또한 젊은 층에 비해 피부에 분포하고 있는 냉점의 수가 크게 감소하게 되어 추위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하여 저체온이 되기 쉬우며, 피부의 발한 능력과 산열량도 적어진다. 또한 체내온도는 높아 더위에 약하고 특히, 땀의 발생량이 저하되며, 땀샘 하나로부터 발생하는 땀의 양 또한 적어진다. 이처럼 환경에 따라 체온 조절이 빠르게 이루어 지지 않고 땀의 배출도 줄어들어 피부는 더욱 건조하게 된다^{5,6)}.

따라서 의복을 통해 노년층의 생리적인 기능 저

- 1) 성기원, 이연숙, 장윤정, “예비 노년층의 여가활동 현황 및 미래 욕구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지* 25권 4호 (2005), pp. 142-144.
- 2) 김정민, 상정선, 박명자, “노년층의 건강과 운동생활에 따른 기능성소재의 인지 및 착용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8권 1호 (2010), pp. 190-204.
- 3) 홍경희, 최인려, “노년층 소비자의 기능성소재 추구 혜택, 태도 및 구매 의도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7권 1호 (2009), p. 150.
- 4) 김정민, 상정선, 박명자, op. cit.
- 5) 서병숙, *노인연구*, (서울: 교문사, 1991), pp. 11-14.
- 6) 김영애, “노년기 여성의 의생활 실태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p. 6.

하를 보완한다면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거나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노년층의 건강을 위해서 위생성, 보온성 면에서 의복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⁷⁾.

2. 인체생리학적 건강 쾌적 기능성 소재

의복의 쾌적감이란 피부의 신체적합성, 형태 및 환경, 인체의 활동 상태, 직물 및 의복의 특성 등에 의해 좌우되는데, 인간·의복·환경의 체계에서 물리적·심리적·생리적인 요소들의 균형으로 표시되는 만족감의 상태이다⁸⁾. 온열적으로 쾌적한 의복은 자연환경 조건 및 인체의 활동 상황에 대응한 열 및 수분을 이동하거나 차단해 의복 내 기후를 항상 쾌적하게 유지하는 조절 기능을 갖는 것이다^{9,10)}. 즉, 의복 쾌적성의 개념은 ‘불쾌감이 없이 만족한 착용상태’ 또는 ‘의복을 착용한 개인의 요구에 적합하여 기분이 좋은 상태’로 보아 쾌적한 의복이 되기 위해서는 생리·위생적인 측면(신체적 요구), 심리·감각적인 측면(심리적 요구)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쾌적성을 신체적 쾌적성, 심리적 쾌적성, 사회적 쾌적성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생리적인 면과 기능적인 면으로 나누기도 한다. 한편, 쾌적성을 소재의 성능, 의복의 기능과 관련지어 생각할 때는 열적 쾌적성, 촉감 쾌적성, 미적 쾌적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¹¹⁾.

의복의 보건 위생상의 의복 착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목적에는 첫째, 환경의 기후 변화에 대해 인간의 생리적 기능을 손상시키지 않고 쾌적한 기후를 형성시키는 의복의 기후 조절 역할이 있어야 하고, 둘째, 인체의 생리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생리 위생상의 역할이 있어야 하며, 셋째,

외부 환경의 여러 가지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호적 역할이 있어야 한다¹²⁾.

의복과 피부 표면 사이의 작은 공간이 착용감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작은 공간의 온도, 습도, 기류의 의복 기후와 의복으로 피부가 받는 압력인 의복압, 의복과 피부의 접촉인 촉감이 착용감을 결정하는 의복 환경이다. 또한, 많은 의복에 대하여 착용시험을 하여 SD(Semantic Differential)법 등의 심리학적 수법을 이용하여 다변량 해석법으로써 해석한 결과, 착용 시에 느끼는 쾌적성에 주요인은 온냉감/습윤감, 압박감, 접촉감/접촉온냉감의 3가지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의복 환경과 감각을 의복의 성질과 관련시키면 의복 기후는 온냉감, 습윤감으로 느껴지며, 의복압은 압박감, 동작에 따른 활동감과 관련되며, 촉감은 피부와 의복의 접촉이나 의복 재료의 순간적인 열이동 현상과 관련된다. 의복을 입고 사람이 쾌적하다고 느끼는 것은 의복내의 온도가 $32\pm 1^{\circ}\text{C}$, 습도 $50\pm 10\%$ RH, 기류 $25\pm 15\text{cm/sec}$ 의 범위에 있다고 알려져 있다. 즉, 외기의 환경 조건이나 인체의 활동 상황(체온 조절 및 발한에 수반하는 운동 등)에 따라서 수분이나 열을 이동 또는 차단하여 의복 내 기후를 끊임없이 쾌적역으로 유지하는 기능이 요구되는데, 보온성 소재, 흡수·흡습성 소재, 투습·발수성 소재 등이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¹³⁾. 인체 부위의 변형운동에 의하여 피부가 늘어지는 경우, 의복의 여유량으로써 지켜질 수 없을 때에는 의복이 어긋나 의복 재료의 신장으로 커버한다. 이 신장력은 인장 방향과 직각(법선) 방향으로 분력을 발생시켜 압박력이 되며, 이것을 의복압이라고 한다. 의복압이 지나치게 되면 불쾌감을 주는 것이고, 대표적인 소

7) 정혜원, 김구자, “노년 여성의 내의 구매 행동, 착용 및 관리에 관한 연구: 인천광역시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6권 5호 (2002), p. 738.

8) R. N. Dematino, H. N. Yoon, A. Buckley, C. V. Evins, R. B. Averell, W. W. Jackson, D. C. Schultz, C. L. Becker, H. E. Booker, and N. R. S. Hollies “Improved Comfort Polyester Part III, Wearer Trails,” *Textile Research Journal* Vol. 54 (1984), pp. 447-458.

9) Y. Li, B. V. Holmobe and F. Apcar, “Moisture buffering Behave of Hygroscopic Fabric during Wear,” *Textile Research Journal* Vol. 62 No. 11 (1992), pp. 619-627.

10) Y. Li, A. M. Plante and B. V. Holcombe, “Fiber Hygroscopicity and Perceptions of Dampness, Part II: Physical Mechanisms,” *Textile Research Journal* Vol. 65 No. 6 (1995).

11) 이순원, 조성교, 최정화, *의복과 환경*,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5), pp. 6-15.

12) 심부자, *의복과 환경*, (서울: 교문사, 2001), p. 96.

13) 류덕환, 권오경, *쾌적성 추구를 위한 의복의 감성과학과 응용*, (서울: 경춘사, 2005), pp. 179-180.

제로 신축성 소재가 있다¹⁴⁾. 촉감에는 질감이라고도 하는 손으로 만져서 판단할 수 있는 피부에 닿는 느낌인 접촉감과 만져서 바로 느끼는 따뜻하거나 차가운 느낌인 접촉 온냉감이 있다. 이들은 의복 재료의 성질과 깊은 관계가 있다.

의복이 인체를 방호하면서 쾌적하고 효율적인 생활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보건위생상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동시에 온열생리적인 면, 운동기능성 요구도 함께 만족시켜야 한다. 또한 의복을 구성하는 의복 재료, 의복 형태, 착용 방법이 연구되어야 한다. 결국 인체에 착용된 의복은 인체를 보호할 뿐 아니라 생활의 효율을 증진시키는 기능적인 면에서 그 성능이 고려되어야 한다. 의복의 위생적인 면에서 종래에는 주로 군복 등 기능복 위주의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근래에는 합성섬유의 소비량이 증가되면서 의복의 쾌적성이 문제가 되어 일반 의복에 대해서도 쾌적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가 활발해졌으며, 생활 및 작업환경의 다양화에 따른 보호복과 소재 개발에 따른 각종 보호복의 적합성 문제도 깊게 논의되고 있다¹⁵⁾.

3. 노년층 관련 기능성 소재에 관한 선행 연구

기능성 소재란 섬유가 갖는 기존 형태에 특수한 기능을 새로이 부여한 소재로, 소재의 기능성은 원사단계 또는 제작된 소재에 다양한 가공기술로 외관과 성능을 변화시켜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며, 인간의 의생활을 쾌적하고 건강하며 안전하게 해주는 기능성 제품으로 상품화 되고 있다¹⁶⁾. 본 연구에서는 의류용 기능성 소재를 성능의 특징에 따라 쾌적 지향 소재와 건강·안전 지향 소재로 구분하였다.

쾌적 지향 소재에는 보온성 소재, 흡수·흡습성 소재, 투습·방수(발수)성 소재, 신축성 소재, 경량 소재 등이 있다¹⁷⁾. 쾌적 지향 소재는 외부 환경 변화로부터 체온과 의복 내 기후를 쾌적하게 유지시

켜 주고, 움직임 시 마찰이나 압박으로 인하여 인체를 구속하지 않아야 하며, 비나 눈으로부터 의복이 젖지 않게 하는 성능 등을 발휘한다.

건강·안전 지향 소재에는 항균·방취 소재, 자외선 차단 소재, 전자파 차단 소재, 황토 소재, 키토산 소재, 알로에 소재, 방향성 소재 등이 있다. 이들 소재로 제작한 의복은 외부 환경과 각종 위험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할 수 있다.

국내 기능성 섬유 시장은 스판덱스, 흡한속건, 투습방수, 항균·방취, 원적외선 방사 등의 소재가 보편화된 상황이다. 이미 범용화 된 흡한속건, 신축성 소재는 물론 투습·방수, 방풍 소재와 자동 온도 조절, 정전기 방지, 자외선 차단 기능을 갖춘 다양한 신소재가 아웃도어, 골프와 같은 스포츠웨어 소재 뿐만 아니라 여성복, 캐주얼 시장에서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특히 아웃도어 시장의 성장에 따라 이러한 의류 제품들의 기능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데, 최근에는 흡한속건, 투습발수, 항균·방취 등의 여러 기능을 복합 가공한 소재들이 스포츠의류 전반에 포괄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집약적 기술 개발을 통한 폭넓은 제품 개발이 급진전되고 있다. 노년층의 건강과 노인 특유의 체취와 땀 배출, 건조한 피부 및 더 나아가 수명 연장을 위한 여러 종류의 건강기능성 소재 개발이 요구된다.

노년층의 의류 소재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박윤철¹⁸⁾은 60세 이후는 신체기능의 퇴화에 따른 체온 조절 기능이 저하되어 보온성, 흡수성을 고려하여 여성복에서 활용하고 있는 일반 소재를 그대로 활용하기보다는 건강을 위한 기능성을 갖춘 소재를 활용하여 고기능성과 패턴을 달리한 의류를 개발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고, 권순정과 문명희¹⁹⁾는 실버세대를 위해서는 가격대가 비교적 낮고, 맞춤형 소재와 소재에 보다 신경을 쓴 편안한 캐주얼 스타일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김유덕과 김미영²⁰⁾은 노년

14) 추미선, *의복환경과학*, (서울: 경춘사, 2001), pp. 15-20.

15) 이순원, 조성교, 최경화, *op. cit.*

16) 장지혜, *신피복재료학*, (서울: 신광출판사, 1996), p. 126.

17) 조길수, 정혜원, 송경현, 권영아, 유신정, *새로운 피복재료학*, (서울: 동서문화원, 2003), pp. 329-353.

18) 박윤철, "실버의류에 적합한 가공기술: 실버섬유의 키워드는 건강과 쾌적," *섬유기술과 산업* 8권 2호 (2004), pp. 141-151.

19) 권순정, 문명희, "실버세대 여성의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동주대학교 논문집* 26권 (2004), pp. 481-496.

20) 김유덕, 김미영, "중노년층 여성의 의복추구이미지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8권 6호 (2004), pp. 746-757.

층은 디자인 선택 기준으로 체형 커버, 젊고 개성적 순으로 나타났고, 여름 상의 소재는 흡수성, 하의는 신축성, 무늬는 무지, 물방울, 꽃무늬 순이고, 소재 특성은 세탁안정성과 다림질이 필요 없는 소재를 중요시했다.

그 밖에 노년층 의류에 대한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다른 연령대에 대한 선행 연구에 비해 현저하게 부족하기는 하지만 체형 변화에 대한 연구나, 시장 세분화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 의복 관여에 대한 연구,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고, 노년층을 위한 시장이 가능하며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해 왔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서 살펴보면 노년층의 선호디자인과 미의식, 의복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노년층 세대를 위한 건강 쾌적 의복 소재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건강 의복 소재의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었다.

본 연구의 전보²¹⁾에서는 노년층의 건강생활(건강 상태, 건강 관심)과 운동 생활(운동 참여, 운동 관심)에 따른 기능성 소재의 인지 및 착용에 관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노년층의 건강 생활에 따른 ‘건강 상태’와 ‘건강 관심’의 두 집단 별 기능성 소재의 인지도의 경우, 건강 관심 고집단이 저집단에 비해 쾌적 지향 소재뿐만 아니라, 건강·안전 지향 소재에 있어서도 많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 상태 저집단에서는 건강·안전 지향 소재를 더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성 소재 의류 제품은 ‘건강 상태’보다는 ‘건강 관심’이 높을수록 더 많은 활동적인 스포츠웨어 기능성 소재 의류 제품을 소유한다고 하였다.

노년층의 운동 생활에 따른 ‘운동 참여’와 ‘운동 관심’ 집단별 기능성 소재 의류 제품의 인지도를 비교해 본 결과, 운동 관심 집단보다는 운동 참여 집단에서 기능성 소재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으며, 운동 참여 고집단이 저집단에 비해 흡수감 관련 소재와 실외 활동 의류 소재를 더 많이 알고 있었다.

착용 정도에서는 운동 관심 저집단에서 스포츠웨어용 소재보다 평상 시 착용하는 건강 쾌적 캐주얼 의류용 소재들에서 높게 나타났다. 운동 참여 고집단에서는 흡수감 소재와 실외 활동 의류 소재를 더 많이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 참여 저집단의 경우는 건강 쾌적 캐주얼 의류의 소유가 많고, 반대로 운동 참여 고집단은 복합기능성 스포츠웨어를 더 많이 소유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기존에 상식적이라고 생각되었던 “건강 상태가 좋고, 운동을 많이 하는 노년층”보다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운동을 하지 않는 노년층”에서 오히려 건강 쾌적 소재를 더욱 인식하고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능성 소재를 단지 운동을 위한 활동적인 스포츠웨어뿐만 아니라 일반 건강 쾌적 캐주얼 의류에도 접목시켜 다양한 기능성 소재의 의류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고하였다²²⁾.

III.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액티브 실버층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건강 쾌적 기능성 소재 의류 제품의 중요도, 인지도, 착용도, 만족도, 소유도를 알아보는 것을 연구 주제로 선정하였다. 액티브 실버층의 연령 기준은 50대의 예비 노년층을 포함하여 대상으로 하였다. 응답자가 기입이 가능한 경우에는 스스로 질문지에 답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훈련된 조사원이 응답을 받아 적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노년층들이 이해하기 쉽고 특성에 맞도록 예비 설문지를 작성하여 예비조사 및 논의의 과정을 거친 후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본 조사를 위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자료 본 조사 기간은 2009년 10월 13일부터 10월 31일이었으며, 전국에 총 400부를 배부하여 351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에서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오류가 있는 설문 19부를 제외한 332부의 자료를 결과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응답자 특성은 <표 1>과 같다²³⁾.

21) 김정민, 상정선, 박명자, op. cit.

22) 김정민, 상정선, 박명자, op. cit.

23) 김정민, 상정선, 박명자, op. cit.

〈표 1〉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332)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지역	수도권	158	47.6
	수도권 외	174	52.4
연령	50~59세	189	56.9
	60대 이상	143	43.1
성별	여성	204	61.4
	남성	128	38.6
월평균 의복비	10만 원 미만	139	41.9
	10~30만 원	152	45.8
	30~50만 원	33	9.9
	50~100만 원	8	2.4
월평균 가계 소득	100만 원 미만	26	7.8
	100~200만 원	52	15.7
	200~300만 원	81	24.4
	300~400만 원	61	18.4
	400~500만 원	47	14.2
	500만 원 이상	65	19.6

2. 측정도구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실증적 연구로서 설문조사 방법을 실행하여 의류 제품을 착용할 때 중요시 하는 의복 재료의 건강 쾌적 성능 문항, 기능성 소재의 성능별 구분에 따른 인지도, 착용 정도, 만족도에 관한 문항, 기능성 소재의 용도별 구분에 따른 소유 제품에 관한 문항,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문항으로,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다.

의류 제품을 착용할 때 중요시 하는 의복 재료의 건강 쾌적 성능을 항목별로 알아보기 위해 인체 생리학적 측면에서 본 쾌적성의 성능인 온열감, 습윤감, 접촉감, 압박감, 활동감의 각 문항들을 총 11문항으로 구성하였고, 기능성 소재의 성능별 구분에 따른 인지도, 착용 정도,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은 먼저 기능성 소재는 현재 시판되고 있는 쾌적 지향 소재 5종(보온성 소재, 흡수·흡습성 소재, 투습·발수성 소재, 신축성 소재, 경량 소재)과 건강·안전 지향 소재 6종(항균·방취 소재, 정전기 방지 소재, 자외선 차단 소재, 황토 소재, 키토산/알로

에 소재, 방향성 소재)의 총 11종의 기능성 소재를 추출하였다. 기능성 소재의 성능별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복합기능성 스포츠웨어, 건강 쾌적 캐주얼 의류, 의료용 섬유 제품으로 제품군을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는 제품에 모두 선택할 수 있도록 다중응답으로 질문하였다. 예비조사 시 착용 제품에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인 4종(보온성, 흡수·흡습성, 투습·발수성, 신축성)의 기능성 소재 의류 제품은 각각 사진을 제시하여 문항을 구성하고, 예비조사에서 빈도가 낮았던 기능성 소재 의류 제품은 기타 응답란에 기입하도록 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빈도분석, 교차분석, χ^2 검증, *t*-test, 다중응답분석을 실시하였다²⁴⁾.

IV. 결과 및 논의

1. 건강 쾌적 기능성 소재 의류 제품의 중요도

노년층의 의복 제품을 착용할 때 중요시 하는 의복 재료 건강 쾌적 성능과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노년층은 건강 쾌적감 중 ‘피부 자극이 없어야 한다(M=4.28)’는 항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두꺼운 옷이라도 가벼워야 한다(M=4.23)’, ‘겨울옷은 보온이 잘 되어야 한다(M=4.20)’, ‘땀 흡수가 잘 되어야 한다(M=4.08)’, ‘잘 늘어나서 움직이기 편해야 한다(M=4.06)’의 순으로 접촉감, 압박감, 온열감, 습윤감, 활동감의 각 항목에서 모두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건강 쾌적감 항목들도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즉, 노년층은 생리적으로도 근육 및 각 기관과 피부의 약화 현상이 일어나 피부가 건조해질 뿐 만 아니라, 체온 조절 반응이 불안정해지므로 열적 특성 및 수분 특성에 있어서도 의복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노년층은 의복 재료의 모든 건강 쾌적 성능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생각된다.

성별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는 건강 쾌적 성능은 두꺼운 옷이라도 가벼워야 한다는 경량성(=

24) 김정민, 상정선, 박명자, op. cit.

〈표 2〉 액티브 실버층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건강 쾌적 기능성 소재 의류 제품의 중요도

구분		건강 쾌적 성능	성별		t	연령		t
의복 환경	감각		여성 (n=204)	남성 (n=128)		50대 (n=168)	60대 이상 (n=164)	
촉감	접촉감	피부 자극	4.31	4.22	1.23	4.36	4.17	2.54*
안전성		정전기 방지	4.01	3.91	1.17	4.06	3.85	2.36*
		방취	3.75	3.68	0.69	3.75	3.68	0.79
		자외선 차단	3.68	3.72	-0.38	3.79	3.57	2.34*
의복압	활동감	경량성	4.30	4.13	2.13*	4.27	4.18	1.09
	압박감	신축성	4.07	4.05	0.17	4.10	4.01	1.06
온열기후	온열감	보온성	4.17	4.25	-1.08	4.23	4.16	1.01
	습윤감	흡수성	4.06	4.10	-0.48	4.16	3.97	2.41*
		투습성	4.05	4.07	-0.27	4.12	3.98	1.78
		속건성	4.00	4.01	-0.09	4.06	3.93	1.55
		발수성	3.61	3.78	-1.74	3.69	3.65	0.44

* $p < 0.05$.

-2.13, $p < 0.05$)에 관한 항목을 여성이 남성보다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이 피부 자극, 정전기 방지, 방취, 신축성의 성능을 남성보다 더욱 중요시 했고, 자외선 차단 및 온열감, 습윤감에 있어서는 남성이 더욱 중요시하는 것으로 보아, 남성이 여성보다 의복을 착용할 때 전반적으로 의복 환경의 온열기후에 관한 항목들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층의 연령에 따른 건강 쾌적 성능 중요도 차이에 있어서는 50대가 60대 이상보다 모든 의복 재료 건강 쾌적 성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는 성능은 피부 자극($t=2.54, p < 0.05$), 정전기 방지($t=2.36, p < 0.05$), 자외선 차단($t=2.34, p < 0.05$), 흡수성($t=2.41, p < 0.05$)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평균값이 높게 나타나 건강 쾌적감 항목들을 모두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만, 신 노년층인 50대가 더욱 활동적이고 건강 쾌적한 의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2. 건강 쾌적 기능성 소재 의류 제품의 인지도

노년층의 기능성 소재 의류 제품을 인지하는 정도와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인지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 -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타났다.

노년층이 제시한 기능성 소재 중 가장 높은 인지도를 보인 것은 신축성 소재($M=3.54$)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보온성 소재($M=3.25$), 투습·발수성 소재($M=3.11$), 흡수·흡습성 소재($M=3.10$), 경량 소재($M=3.08$) 순으로 쾌적 지향 소재에 대해 노년층 소비자들은 잘 알고 있었으며, 건강·안전 지향 소재인 황토 소재($M=3.05$), 정전기 방지 소재($M=3.00$), 향균·방취 소재($M=2.85$), 방향성 소재($M=2.81$), 자외선 차단 소재($M=2.80$), 키토산/알로에 소재($M=2.43$) 순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신축성 소재는 일반 의류 제품으로도 이미 많은 제품들이 시장에 상품화되어 있고, 보온성 소재와 투습·발수성 소재, 흡수·흡습성 소재 또한 다른 기능성 의류 제품에 비해서 시장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외의 키토산/알로에 소재 등은 그보다 많이 상품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노년층 소비자들이 덜 인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더욱 적극적인 제품 개발과 활발한 마케팅 활동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노년층 성별의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는 소재는

〈표 3〉 액티브 실버층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건강 궤적 기능성 소재 의류 제품의 인지도

기능성 소재	성별		t	연령		t	
	여성 (n=204)	남성 (n=128)		50대 (n=168)	60대 이상 (n=164)		
궤적 지향 소재	보온성 소재	3.29	3.19	1.01	3.26	3.24	0.22
	흡수·흡습성 소재	3.04	3.20	-1.39	3.17	3.01	1.45
	투습·발수성 소재	3.05	3.20	-1.27	3.17	3.02	1.41
	신축성 소재	3.58	3.47	1.22	3.60	3.45	1.62
	경량 소재	3.10	3.05	0.52	3.17	2.97	1.94
건강 안전 지향 소재	항균·방취 소재	2.96	2.68	2.74**	2.94	2.73	2.00*
	정전기 방지 소재	3.07	2.88	1.87	3.07	2.90	1.60
	자외선 차단 소재	2.84	2.73	0.99	2.82	2.78	0.41
	황토 소재	3.17	2.86	3.03**	3.15	2.92	2.31*
	키토산/알로에 소재	2.52	2.29	2.19*	2.42	2.44	-0.17
	방향성 소재	2.97	2.55	3.93***	2.83	2.79	0.33

* $p<0.05$, ** $p<0.01$, *** $p<0.001$.

항균·방취 소재($t=2.74$, $p<0.01$), 황토 소재($t=3.03$, $p<0.01$), 키토산/알로에 소재($t=2.19$, $p<0.05$), 방향성 소재($t=3.93$, $p<0.001$)로 나타났다. 즉, 여성이 남성보다 건강·안전 지향 소재에서 더 높은 인지를 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흡수·흡습성 소재와 투습·발수성 소재는 남성이 조금 더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층의 연령에 따른 기능성 소재 의류 제품을 인지하는 차이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신노년층인 50대가 60대 이상보다 더 많은 소재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는 소재는 항균·방취 소재($t=2.00$, $p<0.05$), 황토 소재($t=2.31$, $p<0.05$)로 나타났다.

3. 건강 궤적 기능성 소재 의류 제품의 착용도

노년층의 기능성 소재 의류 제품을 얼마나 자주 착용하는지와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노년층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착용하는 기능성 소재 의류 제품은 신축성 소재($M=3.33$)로 나타났고, 보온성 소재($M=3.19$), 흡수·흡습성 소재($M=3.02$) 순으로 자주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습·발

수성 소재($M=2.93$)는 경량 소재($M=2.98$)보다 착용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투습·발수성 소재는 인지 정도에 비하여 착용 정도는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정전기 방지 소재($M=2.60$), 자외선 차단 소재($M=2.44$), 황토 소재($M=2.23$), 항균·방취 소재($M=2.21$), 방향성 소재($M=2.04$), 키토산/알로에 소재($M=1.92$) 순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노년층 소비자들이 있어서는 건강·안전 지향 소재보다 궤적 지향 소재를 더 자주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층의 성별에 따른 착용 정도 차이에서는 신축성 소재($t=5.05$, $p<0.001$), 항균·방취 소재($t=2.00$, $p<0.05$), 정전기 방지 소재($t=3.55$, $p<0.001$)를 여성이 더 많이 착용한다고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특히 신축성 소재에서 높은 차이를 보인 것으로 보아 여성이 외모에 더욱 관심이 많고, 그에 따른 체형에 맞춤새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노년층의 연령에 따른 기능성 소재 의류 제품의 착용 정도를 비교한 결과는 흡수·흡습성 소재($t=2.23$, $p<0.05$), 투습·발수성 소재($t=2.33$, $p<0.05$), 신축성 소재($t=2.97$, $p<0.01$), 경량 소재($t=2.53$, $p<0.05$), 정전기 방지 소재($t=2.29$, $p<0.05$), 자외선 차단 소재($t=$

〈표 4〉 액티브 실버층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건강 께적 기능성 소재 의류 제품의 착용도

기능성 소재	성별		t	연령		t	
	여성 (n=204)	남성 (n=128)		50대 (n=168)	60대 이상 (n=164)		
께적 지향 소재	보온성 소재	3.17	3.21	-0.39	3.20	3.17	0.32
	흡수·흡습성 소재	3.00	3.05	-0.37	3.13	2.88	2.23*
	투습·발수성 소재	2.90	2.98	-0.77	3.04	2.78	2.33*
	신축성 소재	3.55	2.98	5.05***	3.48	3.14	2.97**
	경량 소재	3.06	2.84	1.69	3.11	2.80	2.53*
건강 안전 지향 소재	항균·방취 소재	2.29	2.08	2.00*	2.26	2.13	1.27
	정전기 방지 소재	2.76	2.34	3.55***	2.71	2.45	2.29*
	자외선 차단 소재	2.52	2.31	1.87	2.54	2.31	2.01*
	황토 소재	2.25	2.21	0.35	2.17	2.31	-1.27
	키토산/알로에 소재	1.95	1.89	0.58	1.90	1.96	-0.62
	방향성 소재	2.10	1.94	1.72	2.04	2.04	-0.05

* $p<0.05$, ** $p<0.01$, *** $p<0.001$

2.01, $p<0.05$)를 50대가 더 많이 착용한다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것은 모두 신 노년층인 50대가 60대보다 더 많은 활동과 기능성 소재에 대한 인지도 및 관심에서 오는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4. 건강 께적 기능성 소재 의류 제품의 만족도

건강 께적 의류 제품에 이용되는 기능성 소재 의류 제품을 착용해 본 노년층의 만족도 및 성별과 연령에 따른 만족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노년층 소비자들은 신축성 소재(M=3.75)에 대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그 다음은 경량 소재

〈표 5〉 액티브 실버층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건강 께적 기능성 소재 의류 제품의 만족도

기능성 소재	성별		t	연령		t	
	여성 (n=204)	남성 (n=128)		50대 (n=168)	60대 이상 (n=164)		
께적 지향 소재	보온성 소재	3.64	3.59	0.66	3.64	3.60	0.38
	흡수·흡습성 소재	3.52	3.40	1.22	3.51	3.42	0.95
	투습·발수성 소재	3.52	3.53	-0.06	3.57	3.45	1.35
	신축성 소재	3.84	3.57	3.08**	3.79	3.69	1.18
	경량 소재	3.68	3.65	0.24	3.71	3.60	1.01
건강 안전 지향 소재	항균·방취 소재	3.05	3.05	0.03	3.04	3.08	-0.34
	정전기 방지 소재	3.27	3.35	-0.76	3.32	3.25	0.68
	자외선 차단 소재	3.21	3.23	-0.15	3.25	3.16	0.74
	황토 소재	3.09	3.07	0.08	3.02	3.17	-1.06
	키토산/알로에 소재	2.76	2.88	-0.76	2.77	2.86	-0.62
	방향성 소재	2.83	2.92	-0.67	2.79	2.97	-1.25

** $p<0.01$.

(M=3.67)로 나타났다. 그 외에 보온성 소재(M=3.62), 투습·발수성 소재(M=3.52), 흡수·흡습성 소재(M=3.47), 정전기 방지 소재(M=3.29), 자외선 차단 소재(M=3.22), 황토 소재(M=3.08), 항균·방취 소재(M=3.05)도 평균값이 3이상으로 대체로 만족하였고, 방향성 소재(M=2.86)와 키토산/알로에 소재(M=2.80)는 보통보다 낮은 만족도를 보여주었다.

기능성 소재 의류 제품의 만족도는 의류 제품 착용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복 재료 쾌적 성능 중에서 의복압에 해당하는 신축성과 경량성을 중요시하는 항목과 일치하는 소재인 신축성 소재와 경량 소재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착용 정도에 있어 보온성 소재가 경량 소재보다 착용 정도는 높게 나타났지만, 만족도에서는 경량 소재가 더 높게 나타났다. 노년층의 열적 특성을 더욱더 만족시킬 수 있는 보온성 소재의 개발뿐만 아니라 다른 기능성 소재도 노년층의 특징을 고려하여 더욱 활발한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노년층 성별에 따른 만족도는 모든 기능성 소재 의류 제품에서 비교적 높은 평균값을 보여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특히 신축성 소재($t=3.08, p<0.01$)는 여성이 더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착용 정도와 마찬가지로 외모에 관심이 많은 여성은 체형 맞춤새뿐만 아니라 활동하기에 편리함을 중요시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노년층의 연령에 따른 기능성 소재 의류 제품을 착용해 본 후 만족도에서도 대체로 높은 평균값을 보여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50대와 60대 이상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5. 건강 쾌적 기능성 소재 의류 제품의 소유도

노년층에게 건강 쾌적 의류 제품에 이용되는 기능성 소재 의류 제품의 전체적인 소유도를 조사 및 노년층의 성별 및 연령에 따른 기능성 소재 의류 제품 소유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이 나타났다.

가장 많은 기능성 소재의 의류 제품을 나타낸 것은 63.0%로 보온기능성 재킷이고, 그 다음으로 신축 기능성 바지(59.0%), 흡수·흡습기능성 셔츠(58.7%), 투습·발수기능성 재킷(58.1%)순으로 나타났다.

제시한 36종의 기능성 소재 의류 제품 중에서

15종에서 응답자의 30% 이상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 전반적으로 노년층 소비자들은 기능성 소재 의류 제품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보온기능성 의류 제품은 제시한 10종 중 8종이 모두 30% 이상의 소유도를 나타냈다. 이와 같이 소유도가 높게 나타난 제품들은 일반 캐주얼의류 제품 뿐만 아니라, 활동적인 스포츠웨어 중에서도 일상생활에서도 착용할 수 있는 복합기능성 의류 제품이었다.

노년층의 성별에 따른 소유도의 경우, 많은 의류 제품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보온기능성 모자, 보온기능성 귀마개, 흡수·흡습기능성 사이클 웨어 등의 활동성 있는 스포츠웨어에서 남성이 더욱 많이 소유하고 있었고, 요가복, 압박스타킹 등의 실내 활동 일반 의류인 건강 쾌적 캐주얼의류에서 여성이 더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층의 연령에 따른 기능성 소재 의류 소유 제품의 차이의 결과도 많은 제품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보온기능성 장갑이나 투습·발수기능성 셔츠에서 더 큰 차이를 보여 신 노년층인 50대가 60대 이상보다 더 활동적인 기능성 소재 의류 제품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노년층이 중요시하는 의복 재료의 건강 쾌적 성능을 파악하고, 노년층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기능성 소재의 인지도, 착용도, 만족도, 소유도 등을 파악하여 노년층에게 쾌적성을 높일 수 있는 기능성 의복 재료를 연구 개발하고, 최적의 기능성 건강 의복을 제작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실증적 연구로서 설문조사 방법을 실행하여 50대 이상의 남녀 노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총 332부의 설문지가 최종 통계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의 분석은 SPSS 1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빈도분석, 교차분석, χ^2 검증, t -test, 다중응답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1. 노년층의 의류 제품을 착용할 때 중요시 하는 의복 재료의 건강 쾌적 성능을 알아본 결과, 노년층은 피부 자극이 없는 것, 경량성, 보온성, 흡수성,

<표 6> 액티브 실버층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건강 쾌적 기능성 소재 의류 제품의 소유도 (다중응답)

기능성 소재 의류 제품		성별 n (%)		χ^2	연령 n (%)		χ^2	
		여성 (n=204)	남성 (n=128)		50대 (n=168)	60대 이상 (n=164)		
보온 기능성	재킷	129(63.2)	80(62.5)	0.02	129(68.3)	80(55.9)	5.29*	
	셔츠	95(46.6)	62(48.4)	0.11	103(54.5)	54(37.8)	9.15**	
	조끼	79(38.7)	40(31.3)	1.91	78(41.3)	41(28.7)	5.62*	
	바지	126(61.8)	64(50.0)	4.45*	118(62.4)	72(50.3)	4.86*	
	장갑	88(43.1)	53(41.4)	0.10	96(50.8)	45(31.5)	12.44***	
	양말	85(41.7)	61(47.7)	1.15	93(49.2)	53(37.1)	4.87*	
	모자	34(16.7)	45(35.2)	14.83***	51(27.0)	28(19.6)	2.46	
	귀마개	44(21.6)	40(31.3)	3.90*	58(30.7)	26(18.2)	6.74**	
쾌적 지향 소재	흡수 · 흡습 기능성	셔츠	118(57.8)	77(60.2)	0.17	124(65.6)	71(49.7)	8.55**
		트레이닝웨어	55(27.0)	25(19.5)	2.37	54(28.6)	26(18.2)	4.80*
		양말	73(35.8)	38(29.7)	1.31	74(39.2)	37(25.9)	6.45*
		사이클웨어	4(2.0)	9(7.0)	5.38*	8(4.2)	5(3.5)	0.12
		요가복	26(12.7)	1(0.8)	15.07***	16(8.5)	11(7.7)	0.07
투습 · 발수 기능성	재킷	116(56.9)	77(60.2)	0.35	120(63.5)	73(51.0)	5.18*	
	셔츠	65(31.9)	37(28.9)	0.32	73(38.6)	29(20.3)	12.87***	
	트레이닝웨어	36(17.6)	19(14.8)	0.45	38(20.1)	17(11.9)	3.98*	
	바지	64(31.4)	49(38.3)	1.67	75(39.7)	38(26.6)	6.23*	
신축 기능성	셔츠	120(58.8)	52(40.6)	10.43**	112(59.3)	60(42.0)	9.76**	
	바지	141(69.1)	55(43.0)	22.24***	120(63.5)	76(53.1)	3.60	
	속옷	65(31.9)	19(14.8)	12.05***	58(30.7)	26(18.2)	6.74**	
	트레이닝웨어	54(26.5)	22(17.2)	3.84	51(27.0)	25(17.5)	4.16*	
	수영복	48(23.5)	13(10.2)	9.38**	40(21.2)	21(14.7)	2.28	
	요가복	17(8.3)	2(1.6)	6.68*	10(5.3)	9(6.3)	0.15	
	팔다리보호대	55(27.0)	40(31.3)	0.71	64(33.9)	31(21.7)	5.92*	
압박스타킹	38(18.6)	3(2.3)	19.28***	29(15.3)	12(8.4)	3.64		

df=1, *p<0.05, **p<0.01, ***p<0.001.

신축성의 순으로 인체 생리학적 측면에서 본 쾌적성의 접촉감, 압박감, 온열감, 습윤감, 활동감의 모든 항목을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쾌적 의류 제품에 이용되는 기능성 소재의 의류 제품 중 인지도, 착용 정도, 만족도를 알아본 결과는 모두 신축성 소재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능성 소재 의류 제품 중 가장 높은 소유도를 보인 제품은 보온기능성 재킷, 신축기능성 바지, 흡수·흡습기능성 셔츠, 투습·발수기능성 재킷 순으로 나타났

으며, 제시한 36종의 기능성 소재 의류 제품 중 15종이 30% 이상의 소유도를 나타냈다.

2. 노년층의 성별에 따라 의복 제품을 착용할 때 중요시 하는 의복 재료 건강 쾌적 성능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경량성에 관한 항목을 여성이 남성보다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이 피부 자극, 정전기 방지, 방취, 신축성의 성능을 남성보다 더욱 중요시 했고, 자외선 차단 및 온열감, 습윤감에 있어서는 남성이 더욱 중요시하는 것으

로 보아, 남성이 여성보다 의복을 착용할 때 전반적으로 의복 환경의 온열기후에 관한 항목들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층의 연령에 따른 건강 쾌적 성능 중요도 차이에 있어서는 50대가 60대 이상보다 모든 의복 재료 건강 쾌적 성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피부 자극, 정전기 방지, 자외선 차단, 흡수성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평균값이 높게 나타나 건강 쾌적 감 항목들을 모두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액티브 실버세대인 50대가 더욱 활동적이고 건강 쾌적한 의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3. 노년층의 성별에 따른 기능성 소재 의류 제품의 인지도를 비교해 본 결과는 여성이 남성보다 건강·안전 지향 소재에서 더 높은 인지를 한다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흡수·흡습성 소재와 투습·발수성 소재는 남성이 조금 더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노년층의 연령에 따른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50대가 60대 이상보다 더 많은 소재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층의 남성과 여성의 기능성 소재 의류 제품의 착용 정도는 신축성 소재, 향균·방취 소재, 정전기 방지 소재를 여성이 더 많이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노년층의 연령에 따른 착용 정도는 50대가 훨씬 더 많은 기능성 소재 의류 제품을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층의 성별에 따른 기능성 소재 의류 제품을 착용해 본 후 만족도는 신축성 소재에서 여성이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에 따른 만족도에서는 50대와 60대 이상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노년층의 성별에 따른 기능성 소재 의류 제품 소유도에서는 활동성 있는 스포츠웨어에서 남성이 더욱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내활동 일반 의류인 건강 쾌적 캐주얼의류는 여성이 더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층의 연령에 따른 소유 제품의 차이에서도 액티브 실버세대인 50대가 60대 이상보다 더 활동적인 기능성 소재 의류 제품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결론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적·생리적·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노년층은 의복을 착용할 때 의복 재료의 건강

쾌적 성능의 모든 항목을 중요시 하므로 기능성 소재 의류 제품을 통해 생리적인 기능 저하를 보완한다면 자신감을 회복하고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거나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노년층의 인체 생리학적 특징을 고려한 기능성 소재 의류 제품 연구 및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둘째, 여성 노년층의 신축성 소재 선호를 통해 디자인·구성 관련 연구의 체형의 맞춤새에도 연계되어 인체 생리학적 쾌적성뿐만 아니라 심리학적 쾌적성을 높이는 건강의류 제작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또한, 액티브 실버세대의 기능성 소재 의류 제품의 관심이 높다는 결과를 통해 그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추어 적합하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능이 다양한 소재를 개발한다면 많은 신 노년층들에게 관심을 받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액티브 실버세대를 위한 기능성 소재 의류 제품의 신상품 개발 및 소비자 특성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 권순정, 문명희 (2004). “실버세대 여성의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동주대학교 논문집* 26권.
- 김영애 (1991). “노년기 여성의 의생활 실태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유덕, 김미영 (2004). “중노년층 여성의 의복추구 이미지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8권 6호.
- 김정민, 상정선, 박명자 (2010). “노년층의 건강과 운동 생활에 따른 기능성 소재의 인지 및 착용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8권 1호.
- 류덕환, 권오경 (2005). *쾌적성 추구를 위한 의복의 감성과학과 응용*. 서울: 경춘사.
- 박윤철 (2004). “실버의류에 적합한 가공기술: 실버 섬유 키워드는 건강과 쾌적.” *섬유기술과 산업* 8권 2호.
- 서병숙 (1991). *노인연구*. 서울: 교문사.
- 성기원, 이연숙, 장윤정 (2005). “예비 노년층의 여가활동 현황 및 미래 욕구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5권 4호.

- 심부자 (2001). *의복과 환경*. 서울: 교문사.
- 이순원, 조성교, 최정화 (2005). *의복과 환경*.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장지혜 (1996). *신피복재료학*. 서울: 신광출판사.
- 정혜원, 김구자 (2002). “노년 여성의 내의 구매 행동, 착용 및 관리에 관한 연구: 인천광역시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6권 5호.
- 조길수, 정혜원, 송경현, 권영아, 유신정 (2003). *새로운 피복재료학*. 서울: 동서문화원.
- 추미선 (2001). *의복 환경과학*. 서울: 경춘사.
- 홍경희, 최인려 (2009). “노년층 소비자의 기능성 소재 추구 혜택, 태도 및 구매 의도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7권 1호.
- Dematino, R. N., H. N. Yoon, A. Buckley, C. V. Evins, R. B. Averell, W. W. Jackson, D. C. Schultz, C. L. Becker, H. E. Booker, and N. R. S. Hollies (1984). “Improved Comfort Polyester Part III, Wearer Trails.” *Textile Research Journal* Vol. 54.
- Li, Y., B. V. Holmobe and F. Apcar (1992). “Moisture buffering Behave of Hygroscopic Fabric during Wear.” *Textile Research Journal* Vol. 62, No. 11.
- Li, Y, A. M. Plante and B. V. Holcombe (1995). “Fiber Hygroscopicity and Perceptions of Dampness, Part II: Physical Mechanisms.” *Textile Research Journal* Vol. 65, No. 6.